

다음카카오 '감청영장 불응' 초강수... 藥일까 毒일까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당국의 감청영장과 관련해 대책을 발표하고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이버 망명' 확산 속 신뢰 추락 막기 위한 교육지책 '실정법 위반' 논란 불구 국면 전환용 대응책 시각도

다음카카오가 1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가운데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 야기된 신뢰 추락을 막기 위한 교육지책인 '감청영장 불응' 방침이 약효를 내지 주목된다.

다음카카오의 이석우 공동대표가 13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 수사당국의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공표하며 문제가 되면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공표한 것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당국의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하지 않으면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단순히 이 회사의 최고경영자(CEO)가 처벌을 받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감청 영장 발부 및 집행은 대부분 간첩이나 공안사건과 관련돼 있어 공안사건 수사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다.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인터넷·모바일 대표 기업이 수사당국의 합법적인 수사요청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공표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여론의 향배에 따라 이번 조치는 다음카카오에 약이 될 수 있지만, 자칫 독이 될 수도 있는 극약 처방인 셈이다.

다음카카오가 이 같은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든 것은 그만큼 상황을 다급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이 회사는 이미 지난 8일 "최근의 감청, 영장 등의 이슈들에 대해 진솔하게, 적절하게 말씀드리지 못해 많은 이용자의 마음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공식 사과했지만, 그동안 안이한 대응에 화가 난 이용자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

카카오톡 검열 논란 이후 독일에 서버를 둔 외국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 등으로 넘어간 이른바 '사이버 망명'이 더욱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이번 감청 영장 집행 불응 천명에 앞서 정부 당국과 사전 조율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회사 오너라 할 수 있는 김범수 의장과도 상의를 했고, 김 의장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게 이 대표 설명이어서 회사 핵심 경영진들간에 협의가 이뤄진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표가 미국 로펌 변호사를 지낸 법률 전문가라는 점으로 볼 때 그가 향후 상황 전개와 이에 따른 법적 대응의 수순을 염두에 두고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지난 1일 합법적인 공식 출범을 전후로 확산됐다는 점에서 다음카카오의 경영진들이 회사 통합문제에만 열중해 이 논란을 안이하게 생각하는 우를 범했고, 초동대처에도 실패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처벌을 감수하겠다고까지 말한 것은 화가 난 카톡 이용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레토릭(수사법)으로 보인다"면서 "실제로 영장을 거부해 대표가 처벌을 받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탈 카톡' 어디까지... 텔레그램 가입자 260만명 넘어

1주일 새 두배 증가

카카오톡이 수사 당국의 검열 논란에 대해 뒤늦게 사과와 이용자 보호 조치를 내놓았지만, '탈(脫) 카톡' 추세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검열의 안전지대로 급부상한 독일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Telegram)으로 이동하

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14일 랭커닷컴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5~11일 한 주간 카톡 이용자 수는 2917만 9000여명으로 전주보다 5만6000여명 줄었다.

카톡은 지난달 14일 이후 주간 이용자 수에서 매주 5만~6만명이 빠지는 감소세

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텔레그램 이용자 수 증가는 갈수록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11일 텔레그램 공식 앱 이용자 수는 173만4552명으로 전주의 107만6144명에 비해 61.2%나 늘어났다.

증가 인원은 65만8408명으로 전주의 55만7474명을 뛰어 넘은 것이다.

공식 앱 이용자 수에 개발자 그룹인 테

브로서트가 개방형 소스코드를 이용해 만든 비공식 앱 이용자수를 더하면 지난 5~11일간 전체 이용자 수는 262만4788명에 이른다. 이는 전주의 138만1103명에 비해 거의 갑절로 불어난 수치다.

최근 한 주간 일 평균 이용자 수는 124만4324명(비공식 앱 포함)으로 전주의 61만1783명에 비해 역시 두 배로 증가했다. 텔레그램은 지난 7일 공식 앱에 한국어를 지원하는 기능을 추가한 한국어 버전을 내놓고 서비스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단통법 시행이후 대접받는 중고 스마트폰

온라인 마켓 11번가 상시 매입

온라인 마켓 11번가(www.11st.co.kr)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라 중고 스마트폰을 상시 매입한다고 14일 밝혔다.<사진>

스마트폰을 판매하려는 고객은 신청서를 작성한 뒤 중고폰 재활용 촉진을 위해 설립된 '행복한에코폰'으로 휴대전화를 보내면 되고, 행복한 에코폰은 스마트폰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거래를 하게 된다.

매입가는 기기 상태에 따라 아이폰 5S(16GB)가 최고 43만원, 아이폰 4S(16GB)는 20만5000원, 갤럭시S3는 10만5000원, 갤럭시 노트2는 13만9000원이다. 다음달 14일까지는 기본 매입가에 5000원씩이 추가로 지급된다.

단통법이 시행된 이달 1일부터 13일까지 11번가 중고 휴대전화 매출은 지난해보다 167%, 지난달보다 80% 증가했다.

성윤창 11번가 리빙레저 그룹장은 "단통법 시행 후 고가의 새 휴대전화를 사기보다 중고폰이나 단말기지원제 상품을 구



매하는 고객이 많아졌다"며 "전문적인 매입 업체와 질 좋은 중고상품 판매업체를

영입해 전문 중고상품 채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금주의 추천 앱

가을사랑...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단풍이 들기 시작하고 선선한 바람에 어디론가 떠나고픈 계절. 바깥 날씨에 마음이 뒤숭숭하다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보자. 나들이에 대한 비용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풍성한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한다.

국립공원 산행정보

◆ 앱 : 국립공원 산행정보
/ 제작 : 국립공원
/ 사용기반 : 안드로이드, 아이폰
국립공원 산행정보 앱은 국립공원을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별 코스설정, 날씨정보, 조난신고, 산행기록, 주변검색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블루리본서베이

◆ 앱 : 블루리본서베이
/ 제작 : Aribada Inc.
/ 사용기반 : 안드로이드, 아이폰
나들이에 맞춰 탐방이 빠질 수 없다. 그러나 인터넷을 뒤지면 광고글이 수두룩해 제대로 된 맛집정보를 찾기가 어려운데, 이 앱의 정보를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공신력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캔고루

◆ 앱 : 캔고루
/ 제작 : CanGoTo CORP.
/ 사용기반 : 안드로이드, 아이폰
국내의 다양한 전시회 정보를 알려주고 무료 입장권을 제공하는 캔고루는 관심이 있는 전시회 정보를 푸시 알림으로 배달해주고, 바코드만 찍으면 빠르게 입장하는 기능 등 다양한 편의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DESIGN ZOOZ 제공:디자인주스 (대표 정우주 tiger@designzoos.com)

아이디어 이 피었습니다!

- 홍보지 및 판촉물
- 전단지
- 현수막
- 상패
- 전단지
- 각종 인쇄물
- 현수막
- 각종 인쇄물
- 홍보지 및 판촉물

왕인문화기획 Tel. (061)471-1717~1718
Fax. (061)471-1719
E-mail. ansqudtjs12@hanmail.net